

“아이 비명소리 들어주세요”... ‘해든이 사건’ 엄벌 촉구 잇따라

추모 화환 170여개 순천지원 둘러싸
“진실 외면 말라” 등 현수막도 줄지어
‘사랑해 기억해’ 일동 “평온하길” 소원



26일 순천시 왕지동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서 '아동학대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모임 해든이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관계자들이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와 이를 방치한 친부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안재영 기자

“죽으란 외침에 격격대던 아이의 비명. 재판장님은 들어주세요.”

여수서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하고 방치해 죽게 한 ‘해든이(가명) 사건’의 30대 부부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26일 오전 11시30분께 찾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입구는 장례식장을 방불케 했다.

순천지원에서 광주지법 순천지정으로 이어지는 200여m의 인도 위에는 약 170개의 추모 화환이 빼곡하게 놓여 있었다.

화환을 보낸 이들은 다양했다. 자신을 ‘인친 아들 부자’라고 밝힌 이는 “해든아, 이제 사랑만 받자”라는 문구를 담았다.

너를 사랑하고 미안한 아줌마, 언젠가 꼭 안아 줄 수원 이모, 언제나 해든이편이라는 민아 이모 등도 화환을 통해 해든이가 부디 하늘나라에선 행복하길 소원했다.

한 추모객은 “하늘나라 안 믿는데, 있었으면 좋겠다”며 “거기서는 꼭 행복하게 사랑만 받고 지내”라고 추모했다.

수사 과정과 정식 재판에서 책임을 덜고자 갖은 이유를 대며 반성문을 제출한 데 따른 공분도 이어졌다.

이들은 부부를 향해 “산후우울증을 모독하지 말라”거나 “멈출 수 있었던 유일한 친부”라고 비판했다.

검찰의 구형과 재판부의 선고를 앞두고 엄벌을 촉구하는 이들도 다수였다.

순천지원 청사를 등진 채 놓여져 있던 한 화환에는 “말랑한 아기의 뼈가 21번 부러졌다”며 “분명한 살해 의도. 법정 최고형으로”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그 옆에 있던 다른 화환에는 “반복되는 친자 학대 살해. 재판부는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라

며 사법부를 향해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화환 외에도 순천지원 도로 일대에는 서로 다른 이들이 걸어둔 현수막 십여장이 걸려 있었는데, 해든이를 추모하는 글과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일침,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마음이 같았다.

오후가 되자, 전국 각지에서 추모 피켓을 손에 든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아동학대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전국민들이 모였다는 ‘해든아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일동은 이날 오후 1시께 순천지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들은 “우리는 정치단체가 아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평범한 엄마, 아빠들”이라며 “단 133일을 살다 세상을 떠난 해든이를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홑캠 속 해든이는 온기 없는 방 안에서 머리카락을 쥐어 뜯기고 작은 몸이 바닥에 내던져지고 맞고 또 밟히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다”며 “죽어라는 말이 그 아이가 들은 세상의 전부였다”고 분개해 했다.

그러면서 “정인이 사건 이후 5년. 그러나 달라진 건 없다”며 “숨방망이 같은 처벌은 또 다른 아이를 죽이는 판결”이라고 열변했다.

끝으로 “해든아. 여기서 겪은 아픔들 이제는 다 잊었으면 좋겠다. 너는 아무 잘못도 없었다”며 “다음 생에는 머리카락 한 울거지 사랑해주는 부모를 만나길 바란다”고 소원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차 제주도에서 왔다는 유정원씨는 “판결은 이전의 판례를 바탕으로 내려진다고 들었는데, 잘못된 판례는 바로잡아야 사회가 변하는 것 아니겠나”며 “해든이 사건은 살인 그 이상으로 엄벌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檢, ‘해든이’ 살해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방임 친부는 징역 10년

법원, 내달 23일 선고

검찰이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해든이(가명) 사건’의 친모에 대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2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된 A(30대·여)씨와 B(3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11시43분께 여수시 소재 자택에서 아들을 욕조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B씨는 A씨의 학대 행위를 방치하고 이 사건의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A씨는 “사건 당일 행적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 구호 조치

를 했다는 등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은 비교적 적극적으로 밝혀, 방청객들로부터 공분을 샀다.

검찰은 자신이 피해 아동에 대해 검사를 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그간 많은 사체를 봤지만, 이 사건 만큼 가슴 아픈 건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133일이란 짧은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온 몸에서 보았다”며 “철저 검시대 위에서야 비로소 숨을 얻은 아기의 표정은 홑캠 속과 달리 평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갖는 주체”라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고 장내에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더욱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사랑한 아동 외에도 첫째 아이가 있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삼아 A씨에겐 무기징역, B씨에 대해선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후 최종 진술에서 A씨는 “좋은 엄마가 돼

주지 못해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B씨는 “평생 속죄하며 살 수도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이들 부부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주점서 만취한 40대 업주 등 폭행 구속 기로

주점에서 만취한 40대 업주와 경찰까지 폭행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6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업무방해와 폭행 등 혐의를 받는 A(4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30분께 북구 운암동 한 주점에서 술값 시비로 난동을 부리고 업주 B(60대·여)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둘러 공무원행방장애 혐의도 적용됐다.

제주항공 참사 잔해물 재조사 마무리 임박

현재까지 유해 추정 조각 절반 가량

희생자 시신 확인...40점은 분석 중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잔해물 재조사와 잔해 보관 개선 작업이 마무리를 향해 가는 가운데 유해 추정 조각 절반 정도가 희생자의 시신이 맞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에 따르면 이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항철위), 전남경찰청 과학수사 등은 무안공항 소방대 뒤편에 보관하던 항공기 잔해 중 꼬리 동체 1개, 동체 바닥 1개, 주 날개 1개, 꼬리 날개 1개를 조사했다.

이날 조사에선 유류품 1점이 발견됐다. 앞서 탄백 재분류와 무안공항 활주로 외곽에서 발견된 유해 추정 조각 80점의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을 통해 이 중 38점이 희생자의 시신으로 확인됐다.

40점은 아직 분석이 진행 중이고 2점은 유해

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유류품은 대형 포대 기준 767류음이 수거됐고, 휴대전화 5대도 발견됐다.

항철위와 경찰 등은 27일에는 아직 살피지 못한 꼬리 날개 2개에 대해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량의 유해가 발견됐던 탄백의 경우 재조사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순 염소 축사 화재 70여마리 폐사

26일 오전 11시38분께 전남 화순군 이양면 초방리의 염소 축사에서 불이 났다.

불은 인근에 산림이 있어 산불로 번질 우려가 있었으나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40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축사 1동이 전소되고 염소 150마리 중 70여마리가 폐사하거나 연기를 흡입하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과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